

전남, 관광진흥기금 거의 바닥...중기육성기금 200억 차입 검토



정의화 국회의장(가운데)과 새누리당 김무성(오른쪽),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9일 국회 의정집무실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13일 이전 선거구 확정 담판

정의화 의장 중재 김무성·문재인 회동... 4+4회동 가동키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9일 정의화 국회의장의 중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선거구 확정 법정 시한인 오는 13일까지 양당 대표와 원내대표, 원내수석부대표, 정계특위 간사가 참여하는 '4+4' 회동을 갖고 선거구 확정 문제를 담판 짓기로 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영남과 호남이 각각 3석씩 줄어드는 선거구 확정안은 지역 의석 수 등을 감안할 때 호남의 손실이 크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표의 '통 큰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내놓고 있다.

이에 따라 양당은 10일 실무접촉을 갖고 12일까지 4+4 회동을 진행, 13일 이전에는 선거구 확정 협의를 이룰 방침이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비공개 회동 뒤, 기자들과 만나 "제일 시급한 문제는 선거구 확정과 관련해 양당 양측이 기존을 만들어 확정위에 남기는 일"이라며 "오늘 내일 중으로 양당 정계특위 간사와 수석부대표가 만나서 실무적인 얘기를 하고 어느 정도 의견이 좁혀지면 '4+4 회동'을 통해 협의를 보기 위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표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정계특위 간사가 2+2로 우선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거기서 방안이 좁혀지거나 몇 가지 선택가능한 방안이 마련되면 내일 저녁이라도 '4+4 회동' 형식으로 밤을 새서라도 마무리 해보려고 했다"고 말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선거구 확정과 관련, 영남의

지역구 의석은 67석이지만 호남은 30석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영·호남 의석수가 같이 줄어드는 안 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대로 영·호남이 각각 3석씩 줄어든다면 호남의 지역구 의석수는 30석 대가 무너지면서 정치적 목소리가 더욱 위축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반면, 영남은 지역구 의석이 3석 줄어든다고 해도 최소 64석은 확보하면서 정치적 불이익이 그리 크지 않을 전망이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문 대표가 선거구 확정 회동에서 '비례대표 고수'라는 원칙에 엄매이지 말고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얻을 것은 얻어내는 유연한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인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은 9일 의원정수 300명을 유지하되 지역구 의석수를 260석으로 늘리자는 중재안을 제시, 주목되고 있다. 시·도 경계에 인구밀달로 통폐합되는 농어촌이 있으면 제한적으로 농어촌 지역 선거구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선거구를 확정하자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비례대표 의석은 14석이 줄게 되지만 17개 시·도 가운데 경북을 제외한 나머지 시·도는 모두 현행 의석을 유지하거나 증가하게 된다.

이 의원은 "경북의 경우 2석이 줄게 되는데 1석은 농어촌 대표성을 감안해 20대 국회에 한해 현행 선거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국회 일주일만에 정상화...예산·법안심의 재개

예결위 예비비 명세서 제출 놓고 여야 또 충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 15명 구성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대한 여야 대립으로 멈춰섰던 국회의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비롯해 안행정위·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부별 예산심사가 재개됐고, 기획재정위·미래창조과학위·보건복지위·산업통상자원위는 법안 심사에 들어갔다. 농해수위는 애초 2일 하기로 했던 김영석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개최했고, 윤리특위는 2012년 18대 대선 개표 조작 의혹을 제기한 강동원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상정했다.

지난 3일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고시 여파로 야당이 보이콧을 선언하며 주중 여당 단독으로 열렸던 예결특위가 이날 정상화됐다.

김재경 예결위원장은 회의 서두에 "민생과 국가 경제의 안정을 위해 힘든 결정을 해준 새정치연합 의원들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한다"며 "예산안 심사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졌는데 원활한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협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애초 6일까지 마지기로 했던 예결특위 부별심사는 10일까지 연장에 열린다. 예결특위는 이날 전체 회의에서 새누리당 8명, 새정치연합 7명 등 15명으로 구성된 예산안조정소위(위원장 김재경 의원) 구성안을 의결했다. 조정소위는 12일부터 활동을 시작한다.

하지만, 예결특위는 회의에서 국정교과서 예산안 예비비 자료 제출 문제를 놓고 또다시 충돌했다. 야당 간사인 새정치연합 안민석 의원은 "지난주 김 위원장이 여야가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 국정교과서 예비비 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고,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예비비 내용에 대한 자료를 내년 5월에 제출한다는 재정당국의 대원칙에 맞춘 것"이라며 원칙문제 해결이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기획재정위는 경제재정소위를 열고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쟁점법안 심사를 재개했다. 지난 4월 여야 원내대표가 처리에 합의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은 공공기관이 5% 범위에서 사회적기업 물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내용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다. 정부·여당이 중점처리 법안으로 지목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 부분 포함 여부를 놓고 여전히 평행선을 달렸다.

미래창조과학부통신위는 전체회의에서 고대영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를 채택했다. 고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16일 열릴 예정이다.

공적연금특위는 공적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사회적 기구 활동결과를 보고받고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에 들어갔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광주시·전남도 기금운용 비상

용자급↑ 전입급↓ 조성액 급감

도 재정난에 올 출연 20% 삭감

시는 용자 운용 기금 거의 없어

금융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지역 영세기업, 농어업인, 관광업체 등이 의존하고 있는 전남도의 중소기업육성기금, 농어촌진흥기금 등의 기금 운용이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다. 대부분의 기금이 일반회계에서 전입돼 조성되고 있으나 전남의 재정 형편상 수요에 맞춰 증가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대상자들의 신규 용자, 금액 증대 요청은 쇄도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남도는 용자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경우 내년엔 200억원 규모의 자금을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방안까지 검토중이다. 신규 용자를 줄일 경우 지역기업, 농어업인 등이 자금난에 봉착할 수 있기 때문에 외부 자금이라도 끌어와 기금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이자수입이 이자율 하락으로 올해 17억2742만원에서 내년엔 10억원대 안팎으로 줄어들고, 용자금은 지난해 400억원에서 올해 600억원으로 증가하는 등 늘어나는 추세다.

전남도내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하의 농어업인과 생산자 단체에게 시설 및 운영자금을

■ 전남도 주요 기금 조성 현황

기금명	2014년 말 조성액	2015년 기금 운용			2015년 말 조성액
		수입	지출	증감	
중소기업 육성기금	575억8083만원	542억4637만원	740억5333만원	-198억6951만원	377억7388만원
농어촌 진흥기금	171억7376만원	383억3621만원	504억2900만원	-120억9279만원	50억8097만원
녹색축산육성기금	258억1961만원	148억439만원	154억원	-5억9561만원	252억2400만원
관광진흥기금	51억109만원	49억8778만원	100억원	-50억1222만원	8886만원
한옥발전기금	147억6484만원	42억7275만원	60억원	-17억2725만원	130억3759만원

연리 1%로 빌려주는 농어촌진흥기금은 지난해 이자수입이 7억100만원에서 올해 5억1521만원으로 감소했다. 내년엔 더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관광속박업 시설이나 관광편선 관련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 등에게 자금을 융자해주는 관광진흥기금 역시 올해 지출액이 100억8886만원으로 지난해(39억2610만원)보다 크게 늘었다. 이에 따라, 2014년 말 51억109만원이었던 관광진흥기금은 올해 말에는 8886만원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한옥발전기금 역시 수입보다 지출이 큰 구조다. 한옥 건축주에게 금리 2%로 최대 4000만원을 융자해주는 이 기금은 출연금이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15억원으로, 용자금 역시 80억원에서 60억원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출이 60억원으로 수입(42억7275만원)보다 많았다. 그러나 재정 형편이 어려운 전남도는 올해 오히려 지난해에 비해 기금 전입금 규모를 5분의 1 삭감했다. 기금 조성에 예산을 할 정도로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기금 규모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채까지 값이 떨어지거나 하는 전남도는 갈수록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을 전망이다.

광주는 운용중인 16개 기금 증자금을 기업 및 개인에게 융자해주는 기금이 적다보니 전남도에 비해 사정은 나은 편이다. 광주시가 운용중인 기금은 여성발전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시립예술단체 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등 정책적인 기금이 대부분이다.

또한, 상무소각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과 위생매립장 주변 영향지역 주민지원 기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등도 포함돼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용자 등의 방식으로 운용되는 기금이 사실상 거의 없어 현재로서는 기금운용이 안정적이긴 하지만, 저금리가 지속될 경우 이자수입 등이 줄어 기금 수입이 줄어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충북가 일본여행

무안(광주)↔기타큐슈 직항

2015년 10월 9일(금)~12월28일(월)

패턴 :매주 목(2박3일) /토(2박3일)출발

스케줄 : 무안(5:00) → 기타큐슈(06:10) 기타큐슈(01:50) → 무안(02:50)
항공기 : 스타플라이어항공 / 기종 : A320-200 / 좌석 : 150석

비행기로

(월) 799,000원에 관다!~

북큐슈/야마구치 3일

(목)성인/599,000원 어린이/569,000원

(토)성인/679,000원 어린이/649,000원

기타큐슈/나가사키/하우스템보스 3일

(목)729,000원 (토)769,000원

기타큐슈/야마구치/미야지마 3일

(목)679,000원 (토)749,000원

골프 야마구치 조요C.C/아사C.C 3일(36홀)/4일(54홀)

(월)(목)(토) 779,000원

벵부/오이타 올레길 [3일] [4일]

(목)(토) 499,000원 ~ 769,000원

2억 영업보증보험 가입업체

조이투어

JOY TOUR CO.,LTD

http://www.joytour.kr

여행길의 즐거운 동반자!!

NAVER 조이투어 검색

광주광역시동구 금남로5가 151-1번지 1층
Tel. (062) 234-3222
Fax. (062) 234-3141

대표이사 최금환